

한국과 필리핀 대학생들의 영어 사과화행 연구

박진숙*

부산대학교

이상도

부산대학교

Park, Jin Sook & Lee, Sang Do. (2014). A study on the English speech act of apology of Korean and Filipino university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15(2), 113-131.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42 Korean English learners and 42 Filipinos use eight apology strategies.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discourse completion tests(DCT) that consisted of ten different situations requiring apologies including factors such as variables of social status, social distance and severity of offen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their realization of apologies. Korean and Filipino university students primarily used an 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IFID) at high frequency. Korean students preferred not to acknowledge responsibility. Instead they tended to use explanation of the situation more than their Filipino counterparts. Filipino students frequently used the strategy of acknowledgement of responsibility as opposed to Korean students. Moreover, the performance of apologies by two groups was greatly influenced by a variety of contextual factors (i.e., social distance, social status, and severity of offence) embedded into situations of DCT.

[speech act/apology strategies/discourse completion test(DCT)/
화행/사과 전략/담화 완성형 설문지]

I. 서론

언어와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 언어를 알고 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지식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가치관, 사고방식, 문화, 규범 등의 의미를 함께 안다는 것을 의미

* 제 1저자: 박진숙, 교신저자: 이상도

한다. 또한 언어는 개인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드러내는 상징적 자본이자 경쟁의 도구이며, 때로는 경제적,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생산 또는 재생산 해냄으로써 보이지 않는 사회계급을 만들어내는 장치라 할 수 있다(최수정, 2013). Canale과 Swain(1980)에서는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그리고 전략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맥락과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발화를 하는 능력인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Bachman과 Palmer(1996)에서는 Canale과 Swain에서 사용한 의사소통능력이라는 용어를 의사소통적 언어능력(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으로 수정하고, Bachman(1990)에서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Bachman과 Palmer(1996)에서는 언어 사용, 언어 평가 수행에서의 의사소통적 언어능력 구성요소(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use or test task and setting)로 언어 지식, 전략 능력, 세상에 관한 지식 그리고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을 제시하였다. 즉, 의사소통능력은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식, 전략 능력,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이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치체계를 가진 외국인 학습자들이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는 특히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는 외국어 학습자들의 화행(speech act)을 모국어 화자들의 것과 비교·대조하는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발화수반 행위 중 요청, 거절 등의 화행과 함께 널리 연구되어 온 사과화행을 다루겠다. 사과화행은 청자에게 끼친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을 제시하여 상대방과의 훼손된 관계를 복구하려는 의도를 가진 화행으로 손상된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화행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사과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른 문화권의 영어 학습자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비교·대조하고, 사회적 지위, 사회적 친밀도 그리고 위반의 심각성이라는 변인이 사과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어 학습자들이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치체계를 알고 올바른 사과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사과화행

최근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법과 발음의 학습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 관한 화용론적인 학습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Austin(1962)은 전통적 철학자들의 견해인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문장은 무의미한 문장이다.’라는 진리 조건적(truth-conditional) 논리 분석에 반박하였다. 그는 모든 문장은 어떠한 행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화행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단순히 무엇인가를 말하는 행위 즉, 언어표현 그 자체를 나타내는 행위인 발화행위(locutionary acts), 둘째, 문장의 발화와 함께 숨겨진 의도를 전달하여 사과, 감사, 명령, 요청, 약속, 질문 등과 같은 행동을 수행하는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s), 셋째, 발화로 인해 청자의 행위를 변화시켜 화자가 의도한 것을 성취하는 행위인 발화효과 행위(perlocutionary acts)이다. Austin은 세 가지 언어 행위 중 발화수반 행위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발화수반 행위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화자의 발화의도인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의 명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발화수반 행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가 제시되었는데, Austin(1962)은 발화수반 행위를 판정, 행사, 언약, 설명,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Searle(1979)은 Austin의 분류가 발화수반 행위의 분류가 아닌, 언어 철학적 관점에서 발화수반 동사의 분류를 했다는 점과 일관된 분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ustin의 분류를 비판¹하면서, 발화수반 행위를 단언, 지시, 언약, 감정표현, 선언의 다섯 가지로 재 분류하였다. Searle은 그의 분류에서 화자가 어떤 사건에 대한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행위를 감정표현(expressives)행위라고 설명하고, 화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위반에 대해 청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인 사과(apologize)²를 감정표현행위 유형의 범주 안에 두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이것이 화행이다. 화행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또는 최소한의 단위³이고 언어를 말하는 것은 화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과화행은 손상된 청자와 화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화행 중의 하나이다. Bergman과 Kasper(1993)에서는 사과화행은 칭찬, 감사 그리고 불평화행과 함께 어떠한 사건 후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불평화행처럼 사건의 평가가 나쁘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불평화행과는 달리 사과화행은 사과를 하는 화자와 사과를 받는 청자와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많은 연

¹ “In sum, there are (at least) six related difficulties with Austin's taxonomy; in ascending order of importance: there is a persistent confusion between verbs and acts, not all the verbs are illocutionary verbs, there is too much overlap of the categories, too much heterogeneity within the categories, many of the verbs listed in the categories don't satisfy the definition given for the category and, most important, there is no consistent principle of classification”(Searle, 1979, p.11-12).

² 하지만 Austin에서는 apologize 동사를 behabitives 범주 안에서 분류하고 있다.

³ “More precisely, the production or issuance of a sentence token under certain conditions is a speech act, and speech acts are the basic or minimal units of linguistic communication”(Searle, 1969, p.16).

구자들이 사과화행을 정의하였는데, Goffman(1967)은 사과는 어떤 사건의 위반 시 그 문제를 치유하여 사회적인 균형과 조화를 재정립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사과를 일종의 치유대화(remedial interchange)라고 하였다. 그는 사과를 위반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보상 없이 사과문구만을 제공하는 의식적인 사과와 위반에 대해 실제적인 보상을 하는 실질적인 사과로 나누었다. Holmes(1990)는 사과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위반에 대해 보상하여 상대방과의 관계를 복구하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문화에 맞는 적합한 방법으로 사과화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rown과 Levinson(1978, 1987)은 사과란 당사자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행위라 설명하면서 사과화행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공손성을 들고 있다. Brown과 Levinson(1987)에 의하면 청자가 화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을 때, 청자와 화자의 사회적 친밀도가 낮을 때 그리고 위반의 심각성이 클 때 더 공손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공손성의 사용은 체면위협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own과 Levinson에 의하면 체면이란 의사소통을 하는 당사자들이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공적인 자아상(public self-image)으로, 타인으로부터 체면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과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자아상을 얻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체면을 유지하려는 체면욕구(face-wants)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위협해야만 하는 경우, 발화수반행위 즉, 발화 의미와 문장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화행이나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시켜 공손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Brown과 Levinson은 이러한 체면 욕구를 위협하는 발화나 행위를 체면위협행위(Face Threatening Act: FTA)라 정의하고, 사과라는 발화 행위는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청자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화자의 적극적 체면에 손상을 가하는 체면위협행위이고 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체면보존행위라고 하였다. 한편 Trosberg(1987)는 사과가 체면보존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청자에게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이나 설명을 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체면을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화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외에서도 사과화행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ohen과 Olshtain(1981)은 히브리인 영어 학습자와 미국인을 대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여덟 가지 상황을 주고 역할극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사과화행을 수행하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히브리인 영어학습자는 그들의 사회문화적인 언어능력 때문에 문화적, 문체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과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W. Chang(2008)은 사과가 요구되는 상황이 담긴 담화완성형 설문지(Discourse Completion Test)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다른 문화에서 온 호주인과 중국인이 서로 다른 사과전략을 사용하고 공손성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음을 밝히고, 공손성에 대한 인지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고 결론짓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Eslami와 Mardani(2010)에서는 60명의 피 실험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두 집단의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교육이 적절한 사과화행의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혜련(1997)에서는 한국어 화자, 영어 원어민 화자,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사과전략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화자와 영어 화자는 공통적으로 발화 수반력 지시장치(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s, 이하 IFID)와 보상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 원어민 화자보다 낮은 비율로 사과 전략을 사용했고, 모국어 전이현상이 발견되었다. H. Kim(2008)에서는 한국인들의 ‘mianhada’, ‘joesonghada’라는 사과표현이 호주인들의 ‘sorry’라는 영어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 목적으로 하고 ‘mianhada’, ‘joesonghada’는 화자의 책임감, 의무감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담화완성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과 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mianhada’, ‘joesonghada’ 중 어떤 사과 표현을 선택하는지 조사함과 동시에 각 상황별 사과전략도 조사하였다. 김인규(2008)에서는 담화완성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말레이시아인 학습자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의 사과화행 실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법의 정확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두 그룹의 사과전략 사용 빈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목표언어의 문화와 사회 화용론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변인들 또한 다양하게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J. H. Shim(2011)서도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과 중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 사과 전략을 연구하였는데 참가자들이 사회적 친밀도에 따라 서로 다른 사과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 밖에 미국인 화자와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사과 화행을 비교한 E. M. Yang(2002)의 연구,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익 점수에 따라 상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사과 책략을 사회적 변인과 함께 살펴보고, 사용된 사과표현의 적합도를 측정한 김남국(2008)의 연구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문화권의 영어 학습자들이 사과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과전략들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들이었고, 그들이 사용한 전략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목표어 사용 국가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사과전략을 비교·대조하고 사회적 지위, 사회적 친밀도 그리고 위반의 심각성이라는 3가지 변인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전략을 차이가 나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실험대상

기존의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같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동일한 문화권을 가진 나라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고,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과 같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다른 문화권을 가진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을 두어, 지리적으로는 동양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국의 문화적 식민통치의 경험으로 서구문화가 잔존해 있는 필리핀과,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두 동양권에 속하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과화행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연구는 추후 화행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들과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두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그룹인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들은 필리핀의 세 군데 대학교에 재학중인 42명의 대학생들이며, 두 번째 그룹인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42명의 대학생들이다. 실험에 참가한 한국 학생들은 전공에 무관하고,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규정한 토익 점수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고 있고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2. 실험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화행 수집도구로 널리 이용되는 담화완성형 설문지(Discourse Completion Test, 이하 DCT)를 이용하였다. DCT에는 사과를 요구하는 10가지 상황과 함께 Vollmer와 Olshtain(1989) 그리고 Brown과 Levinson(1987)에서 소개된 사회적 지위, 사회적 친밀도 그리고 위반의 심각성이라는 3가지 변인이 함께 제시되었다. Vollmer와 Olshtain에서는 DCT로 독일인의 사과를 조사하였는데, 사회적 지위, 사회적 친밀도 그리고 위반의 심각성이라는 3가지 변인이 사과 전략의 사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고, Brown과 Levinson에서는 이 3가지 변인이 공손 표현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응답자는 설문지에서 제시된 상황을 읽고 발화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DCT에 제시된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상황 1. 친구와의 약속에 한 시간 늦어 갈 수 없는 경우
- 상황 2. 교수님과의 중요한 면접에 한 시간 늦은 경우
- 상황 3. 식당에서 손님의 몸에 물을 었지른 경우

- 상황 4.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행인의 발을 밟은 경우
- 상황 5. 부하 직원들과의 회의에 늦은 경우
- 상황 6. 선생님께 숙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상황 7. 병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상황 8. 친한 친구의 돈을 빌려 달라는 제안에 거절하는 경우
- 상황 9. 자신의 실수로 주차된 이웃의 차를 부딪친 경우
- 상황 10. 여동생에게 빌린 책이 손상된 경우

또한 각 상황 뒤에는 사회적 지위, 사회적 친밀도 그리고 위반의 심각성이라는 3가지 변인이 함께 제시되었고, 응답자에게 상황별로 해당되는 변인의 단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1은 각 상황에 해당되는 변인을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한 표이다.

표 1
상황별 사회언어학적 변인의 인지도⁴

상황	사회언어학적 변인					
	사회적 지위		사회적 친밀도		위반의 심각성	
	필리핀	한국	필리핀	한국	필리핀	한국
1	0	0	+	+	0	+
2	-	-	0	-	+	+
3	-	-	-	-	+	+
4	-	0	-	-	+	0
5	+	+	0	0	+	+
6	-	-	0	0	+	+
7	0	0	0	0	0	-
8	0	0	+	+	0	-
9	0	0	0	-	+	+
10	+	+	+	+	+	+

본 연구에서는 Olshain과 Cohen(1983), Trosborg(1987)에서 제시한 전략을 주 전략(main strategies)으로 하여 사과 화행의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내용에 따라 모든 전략이 모든 연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Trosborg에서 제시된 ‘위반의 정도 최소화(minimizing the degree of offence)’를 제거하고, 사과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강

⁴ 사회적 지위: 화자>청자: +, 화자=청자: 0, 화자<청자: -
 사회적 친밀도: 가까움: +, 중립: 0, 멀: -
 위반의 심각성: 심각함: +, 중립: 0, 심각하지 않음: -

조전락을 추가하여 전체 여덟 가지의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다. Cohen과 Olshtain의 전략은 문화간 화행실현 프로젝트(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 CCSARP)의 전략과 동일한데,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사과 전략의 표현을 조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내·외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자료 수집방법이다. 아래는 본 연구에 사용된 사과 전략과, 본 연구의 자료에서 온 각 전략들의 구체적인 예를 정리한 표이다.

표 2
사과 전략 분석도구

사과 전략	예시
IFID ⁵	a. An expression of regret: I'm sorry.
	b. An offer of apology: I apologize.
	c. A request for forgiveness: Excuse me., Please forgive me., Pardon me.
설명·해명	: The bus was late.
책임인정	a. an acceptance of the blame: It's my fault.
	b. an expression of self-deficiency: I was confused., I didn't see you., I wasn't thinking.
	c. an expression of lack of intent: I didn't mean to.
보상제시	: I'll pay for you., I'll do everything for you.
재발방지	: I promise it won't happen again., I'll never do it again.
강조	a. intensification: really, very, terribly, please
	b. discourse marker: Oh!, Oh my god, Oh my goodness!, Oh man, well, Oops!
	c. repetition
상대염려	: Are you OK?, Don't worry.
책임거부	a. no answer
	b. evasion: It wasn't my fault.
	c. blame: It's your own fault.

3. 실험결과

작성된 DCT를 이용하여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사용한 사과 전략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10가지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차이가 나게 사용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위, 사회적 친밀도 그리고 위반의 심각성이라는 3가지 변인들에서 사용된 사과 전략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변인과 국적에 따라 사과 전략의 사용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고자

⁵ IFID(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s): 발화 수반력 지시장치 또는 발화 수반력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는 사과 전략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프로그램(SPSS ver. 20)을 사용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두 그룹의 사과 전략의 사용 빈도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3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사과 전략 및 빈도수(N=42)

전략	필리핀인		한국인		t	p
	M	SD	M	SD		
IFID	9.36	1.16	8.57	1.35	2.860	.005*
책임인정	4.60	2.45	1.40	1.42	7.308	.000*
설명·해명	3.29	1.88	5.48	2.59	-4.440	.000*
보상제시	3.17	2.04	4.29	1.93	-2.586	.011*
재발방지	0.64	0.85	0.02	0.15	4.642	.000*
강조	3.02	2.46	3.98	2.27	-1.843	.069
상대염려	0.31	0.64	1.05	1.01	-3.992	.000*
책임거부	0.07	0.26	0.36	0.85	-2.082	.043*

* $p < .05$

먼저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사과전략 및 빈도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 모두 IFID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보상행위, 재발방지, 상대염려, 책임거부의 순서로 사과 전략을 사용한 반면,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우선 상대방에게 설명이나 해명을 하고 나서 보상행위를 표현하며 그 다음으로 책임 인정, 상대염려, 책임거부, 재발방지의 순서로 사과를 하였다. 즉,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강조 전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략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설명·해명 전략을,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책임인정하기 전략을 IFID 전략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상황별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과 전략과 빈도수는 표4와 같다.

표 4

필리핀인(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상황별 사과 전략 및 빈도수(N=42)

상황	IFID	책임 인정	설명·해명	보상 제시	재발 방지	강조	상대 염려	책임 거부	계
1	39(40)	24(1)	18(32)	13(23)	2(0)	10(24)	0(2)	0(0)	106(122)
2	41(40)	24(4)	12(22)	6(12)	12(1)	20(23)	1(1)	0(0)	116(133)
3	41(41)	22(12)	6(11)	18(27)	4(0)	21(31)	1(11)	0(0)	113(133)
4	42(41)	13(6)	10(11)	2(0)	0(0)	22(22)	3(18)	0(0)	92(98)
5	41(40)	28(2)	16(31)	2(9)	3(0)	10(13)	0(0)	0(1)	100(96)
6	36(33)	12(2)	26(33)	6(23)	5(0)	7(7)	0(0)	1(0)	93(98)
7	36(23)	26(2)	19(30)	19(22)	0(0)	9(8)	2(0)	0(4)	111(89)
8	40(26)	3(0)	31(30)	11(6)	0(0)	13(6)	1(3)	2(7)	101(78)
9	39(38)	25(22)	0(10)	24(31)	0(0)	17(24)	2(6)	0(2)	107(133)
10	38(38)	16(8)	0(20)	32(27)	1(0)	13(9)	3(3)	0(1)	103(106)
계	393 (360)	193 (59)	138 (230)	133 (180)	27 (1)	142 (167)	13 (44)	3 (15)	1042 (1056)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과 전략에 대한 실험 결과 필리핀 영어학습자는 총 1042번,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1056번의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다.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IFID 전략 다음으로 잘못을 하게 된 과정이나 사실에 대한 설명·해명 전략을 많이 사용한 반면,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IFID 전략 다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책임인정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대방의 자존심과 체면을 매우 중요시하는 필리핀인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책임인정 전략의 사용은 유의미하게 차이($p < .05$)가 난다. 한편 Brown과 Levinson(1987)에서는 사과라는 행위가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체면위협행위이고, 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체면보존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Trosberg(1987)에서도 사과는 체면보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보다 높은 비율로 설명·해명 전략을 사용하여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체면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상황 9는 주차된 이웃의 차를 실수로 부딪친 상황으로, 상황 3인 식당에서 손님의 몸에 물을 었지른 상황과 함께 가장 많은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다. 상황 9는 전체 상황 중 보상 제시와 책임인정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 상황은 위반의 심각성이 높고 청자와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같으며 친밀도가 낮은 상황으로, 대부분의 화자가 책임인정과 함께 즉각적인 보상을 제시하였다. 상황 3 역시 필리핀인 영

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 모두 위반의 심각성이 높고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보다 낮으며 친밀도가 낮은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상황 9다음으로 보상제시와 책임인정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상황 9, 10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 설명·해명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상황 3에서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전체 상황 중 가장 많은 강조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물을 엮지른 상황에 대해 놀라거나 당황함을 강조 전략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는 연장자의 발을 밟은 경우인 상황 4에서 가장 많은 강조 전략을 사용하였고, 상황 3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의 강조 전략을 사용하여, 원상태로 복구하기 힘든 심각한 상황에서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여 사과표현을 극대화하였다.와는 반대로 선생님께 숙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인 상황 6에서는 두 그룹 모두 전체 상황 중 가장 적은 비율의 강조 전략을 사용하였다. 덧붙여 연장자의 발을 밟은 경우인 상황 4에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전체 상황 중 가장 많은 상대염려 전략을 사용하였다. 표 5, 7, 9에서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사회적 지위가 같고 친밀도가 낮으며 위반의 심각성이 높을 때 가장 많은 상대염려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상황 4를 위반의 심각성이 중립이지만 청자와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같으며 친밀도가 낮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수님과의 중요한 면접에 한 시간 늦은 경우인 상황 2에서는 두 그룹 모두 전체 상황 중 가장 많은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상황 2에서는 두 그룹 모두 높은 비율의 재발방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에 비해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사과를 할 때 재발방지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친한 친구의 돈을 빌려 달라는 제안에 거절하는 경우인 상황8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같고 사회적 친밀도가 가까우면 위반의 심각성이 중립이거나 낮은 상황으로 두 그룹 모두 가장 낮은 비율의 책임인정 전략과 가장 높은 비율의 책임거부 전략을 사용하여 사과를 하였다.

다음으로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사회적 지위, 사회적 친밀도 그리고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전략을 사용하는지 비교해보고 각각의 변인과 국적에 따른 사과 전략의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필리핀인(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과 전략

전략	사회적 지위							
	화자>청자		화자=청자		화자<청자		전체	
	N	%	N	%	N	%	N	%
IFID	98 (64)	9.4 (6.1)	164 (164)	15.7 (15.5)	131 (132)	12.6 (12.5)	393 (360)	37.7 (34.1)
책임인정	52 (8)	5.0 (0.8)	82 (30)	7.9 (2.8)	59 (21)	5.7 (2.0)	193 (59)	18.5 (5.6)
설명·해명	36 (46)	3.5 (4.4)	57 (111)	5.5 (10.5)	45 (73)	4.3 (6.9)	138 (230)	13.2 (21.8)
보상제시	41 (32)	4.0 (3.0)	55 (85)	5.3 (8.0)	37 (63)	3.6 (6.0)	133 (180)	12.8 (17.1)
재발방지	5 (0)	0.5 (0)	6 (0)	0.6 (0)	16 (1)	1.5 (0.1)	27 (1)	2.6 (0.1)
강조	40 (19)	3.8 (1.8)	47 (74)	4.5 (7.0)	55 (74)	5.3 (7.0)	142 (167)	13.6 (15.8)
상대염려	3 (4)	0.3 (0.4)	4 (23)	2.2 (2.2)	6 (17)	0.6 (1.6)	13 (44)	1.3 (4.2)
책임거부	0 (4)	0 (0.4)	2 (9)	0.2 (0.9)	1 (2)	0.1 (0.2)	3 (15)	0.3 (1.4)
전체	275 (177)	26.4 (16.8)	417 (496)	40.0 (47.0)	350 (383)	33.6 (36.3)	1042 (1056)	100 (100)

표 6

국적,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이원 분산 결과표

	<i>df</i>	<i>F</i>	<i>p</i>
국적	1	.114	.736
사회적 지위	2	20.648	.000
사회적 지위*국적	2	3.053	.049

**p*<.05

사회적 지위와 국적에 따른 전체적인 사과 전략의 사용을 보면,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지위변인에 따른 사과 전략의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지위와 국적 간에도 상호작용효과가 보인다. 이는 지위가 사과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지위에 따른 사과 전략의 사용 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과 전략 사용의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 모두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같을 때 가장 많은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고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의 사회적 지위보다 낮을 때,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의 사회적 지위보다 높을 때의 순서로 사과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Holmes(1990)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데,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의 사회적 지위보다 낮을 경우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위엄이나 존경, 그들이 자신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의 사회적 지위보다 높은 경우는 사회적 지위에 따르는 체면 유지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 경우보다 더 적은 사과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재발방지 전략과 강조 전략의 사용에서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의 사회적 지위보다 낮을 때 그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의 사회적 지위보다 낮을 때 오직 한 번의 재발방지 전략을 사용하여 필리핀 영어학습자들에 비해 재발방지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의 사회적 지위보다 낮을 때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들은 보상제시 전략을,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책임거부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다음은 사회적 친밀도에 따른 사과 전략의 결과표이다.

표 7

필리핀인(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사회적 친밀도에 따른 사과 전략

전략	사회적 친밀도							
	높음		중립		낮음		전체	
	N	%	N	%	N	%	N	%
IFID	117 (126)	11.2 (11.9)	167 (93)	16.0 (8.8)	109 (141)	10.5 (13.4)	393 (360)	37.7 (34.1)
책임인정	55 (15)	5.3 (1.4)	90 (15)	8.6 (1.4)	48 (29)	4.6 (2.7)	193 (59)	18.5 (5.6)
설명·해명	48 (98)	4.6 (9.3)	66 (67)	6.3 (6.3)	24 (65)	2.3 (6.2)	138 (230)	13.2 (21.8)
보상제시	50 (61)	4.8 (5.8)	51 (55)	4.9 (5.2)	32 (64)	3.1 (6.1)	133 (180)	12.8 (17.1)
재발방지	8 (1)	0.8 (0.1)	10 (0)	1.0 (0)	9 (0)	0.9 (0)	27 (1)	2.6 (0.1)
강조	35 (48)	3.4 (4.5)	57 (39)	5.5 (3.7)	50 (80)	4.8 (7.6)	142 (167)	13.6 (15.8)
상대염려	5 (8)	0.5 (0.8)	2 (2)	0.2 (0.2)	6 (34)	0.6 (3.2)	13 (44)	1.3 (4.2)
책임거부	3 (7)	0.3 (0.7)	0 (4)	0 (0.4)	0 (4)	0 (0.4)	3 (15)	0.3 (1.4)
전체	321 (364)	30.8 (34.5)	443 (275)	42.5 (26.1)	278 (417)	26.7 (39.4)	1042 (1056)	100 (100)

표 8

국적, 사회적 친밀도에 따른 이원 분산 결과표

	<i>df</i>	<i>F</i>	<i>p</i>
국적	1	.126	.722
사회적 친밀도	2	.237	.790
사회적 친밀도*국적	2	11.941	.000

**p* < .05

표 8을 보면, 국적에 따른 사과 전략의 사용과 사회적 친밀도에 따른 사과 전략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국적과 사회적 친밀도의 상호작용이 사과 전략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친밀도에 따른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는 사회적 친밀도가 중립일 때,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사회적 친밀도가 낮을 때 가장 많은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낮선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고,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는 낮선 사이에서 가장 적은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다.

표 7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는 책임인정 전략과 설명·해명 전략을 사회적 친밀도가 중립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책임인정 전략은 사회적 친밀도가 낮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설명·해명 전략은 사회적 친밀도가 높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는 사회적 친밀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로 재발방지 전략을 사용한 반면,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재발방지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사회적 친밀도가 높은 경우에만 오직 한 번의 재발방지 전략을 사용하여 사과를 하였다.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 두 집단 모두의 상대염려 전략의 사용은 사회적 친밀도가 낮을 때 그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책임거부 전략은 사회적 친밀도가 높을 때 그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의 경우 사회적 친밀도가 중립이거나 낮을 때는 책임거부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사회적 친밀도가 낮을 때 IFID 전략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의 강조 전략(4.8%, 7.6%)을 사용하여 사과 표현을 극대화 하였다.

다음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른 사과 전략의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표 9
필리핀인(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위반의 심각성에 따른 사과 전략

전략	위반의 심각성							
	높음		중립		낮음		전체	
	N	%	N	%	N	%	N	%
IFID	232 (209)	22.3 (19.8)	128 (89)	12.3 (8.4)	33 (62)	3.2 (5.9)	393 (360)	37.7 (34.1)
책임인정	118 (47)	11.3 (4.5)	64 (8)	6.1 (0.8)	11 (4)	1.1 (0.4)	193 (59)	18.5 (5.6)
설명·해명	73 (119)	7.0 (11.3)	56 (60)	5.4 (5.7)	9 (51)	0.9 (4.8)	138 (230)	13.2 (21.8)
보상제시	81 (116)	7.8 (11.0)	42 (35)	4.0 (3.3)	10 (29)	1.0 (2.7)	133 (180)	12.8 (17.1)
재발방지	18 (1)	1.7 (0.1)	6 (0)	0.6 (0)	3 (0)	0.3 (0)	27 (1)	2.6 (0.1)
강조	89 (117)	8.5 (11.1)	47 (32)	4.5 (3.0)	6 (18)	0.6 (1.7)	142 (167)	13.6 (15.8)
상대염려	10 (25)	1.0 (2.4)	3 (12)	0.3 (1.1)	0 (7)	0 (0.7)	13 (44)	1.3 (4.2)
책임거부	1 (5)	0.1 (0.5)	2 (7)	0.2 (0.7)	0 (3)	0 (0.3)	3 (15)	0.3 (1.4)
전체	622 (639)	59.7 (60.5)	348 (243)	33.4 (23.0)	72 (174)	6.9 (16.5)	1042 (1056)	100 (100)

표 10
국적, 위반의 심각성에 따른 이원 분산 결과표

	<i>df</i>	<i>F</i>	<i>p</i>
국적	1	.118	.732
위반의 심각성	2	107.291	.000
위반의 심각성*국적	2	4.894	.008

* $p < .05$

위반의 심각성에 따른 전체적인 사과 전략을 살펴보면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 모두 위반의 심각성이 높을 때 가장 많은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고 위반의 심각성이 중립일 때, 낮을 때의 순서로 사과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의 심각성이 높을 때는 책임거부 전략을 제외하고 각각의 전략들에서 높은 수치의 사용 빈도가 나타났다. 표 9에서 필

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위반의 심각성이 중립일 때 가장 많은 책임거부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위반의 심각성이 중립이거나 낮은 경우, 위반의 심각성 정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책임거부 전략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두 그룹은 위반의 심각성이 낮은 경우 가장 적은 사과 전략을 사용하여 사과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10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적에 따른 사과 전략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위반의 심각성에 따른 사과 전략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위반의 심각성에 따른 사과 전략의 사용패턴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는 사과 전략을 조사하고, 사회적 변인에 따른 사과 전략의 사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필리핀인 영어학습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IFID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들은 책임인정 전략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였고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설명·해명 전략을 IFID 전략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위 변인에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와 필리핀인 영어학습자 모두 사회적 지위가 동일할 때 가장 많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친밀도 변인에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낮선 사이에서 더 많은 사과 전략을 사용한 반면, 필리핀인 영어학습자는 가장 적은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다. 위반의 심각성 변인에서도 위반의 심각성이 높을 때 두 그룹 모두 가장 많은 사과 전략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과 전략의 사용 패턴이 동일하듯, 위반의 심각성에 따른 사과전략의 패턴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언어는 그 언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관, 규범, 관습, 도덕, 윤리 심지어는 법률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외국어 학습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특정 문화의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조사 대상의 범위도 좁고, 그 양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이라는 제한된 조사 대상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두 나라 전체의 사과 전략의 사용 패턴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광범위한 조사 대상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별 화행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화행을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영어 학습자들에게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화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더 심층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국. (2008). 한국 대학생 영어 중간언어의 사과화행 분석 및 적합도 평가. *영어영문학연구*, 50(2), 45-73.
- 김인규. (2008). 대학 사회에서의 한국어 사과 화행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5(1), 195-234.
- 김혜련. (1997). 사회문화적 능력과 언어 전이: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사과의 경우. *사회언어학*, 5(2), 191-219.
- 최수정. (2013). 영어교사교육: 비판적 교육학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현대영어교육*, 14(2), 239-262.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England: Calderon Press.
-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man, M. L., & Kasper, G. (1993). Perception and performance in native and non-native apology. In G. Kasper & S. Blum-Kulka (Eds.), *Interlanguage pragmatics* (pp. 82-10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P., & Levinson, S. (1978). Universal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N. 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pp. 56-2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hang, Wei-Lin. (2008). Australian and Chinese perceptions of (im)politeness in an intercultural apology. *Griffith Working Papers in Pragmatic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2), 59-74.
- Cohen, A. D., & Olshtain, E. (1981). Developing a measure of sociocultural competence: The Case of apology. *Language Learning*, 31(1), 113-134.
- Eslami, R. A., & Mardani, M. (2010).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teaching apology speech act, with a focus on intensifying strategies, on pragmatic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30, 96-103.
- Goffman, E. (1967). *International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Pantheon Books.
- Holmes, J. (1990). Apologies in New Zealand English. *Language in Society*, 19(2), 155-199.
- Kim, Heesoo. (2008). The semantic and pragmatic analysis of South Korean and

- Australian English apologetic speech acts. *Journal of Pragmatics*, 40, 257-278.
- Olshtain, E., & Cohen, A. D. (1983). Apology: A speech act set. In N. Wolfson & E. Judd (Eds.),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acquisition* (pp. 18-35). Rowley, MA: Newbury House.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 R. (1979).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m, Jaehwang. (2011). A Study on social distance between apology strategies of Korean college learne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2), 275-297.
- Trosberg, A. (1987). Apology strategies in native/non-native. *Journal of Pragmatics* 11, 147-167.
- Vollmer, H., & Olshtain, E. (1989). The language of apologies in German.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lbex Publishing Corporation.
- Yang, Eun-Mi. (2002). Thanking and apologizing behaviour in requestive email of Koreans and America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8(1), 125-141.

부록

DCT(Discourse Completion Test) questionnaire

Nationality:

University/Major:

Age:

Sex:

Name:

In this questionnaire you will be asked to read some brief situations requiring an apology. Please respond as much as possible as you would be in an actual situation.

Situation 1

You were supposed to meet with your friend today. However you forgot it. Your friend has been one of your best friends when you were young. It past 1 hour. Moreover you cannot go to a meeting place to meet your friend. How would you apologize?

You : _____

1) What is the social status or relationship between you(A) and listener(B)?				
1	2	3	4	5
(A>B)		(A=B)	(A<B)	
2) How close are you and listener?				
1	2	3	4	5
very close		neutral	very distant	
3) How serious is this situation?				
1	2	3	4	5
very serious		neutral	not serious at all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

박진숙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Tel: (051) 510-2041/ H.P.: 010-9819-7007

Email: jsforevert@hanmail.net

이상도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Tel: (051) 510-2041/ H.P.: 010-4254-2041

Email: leesd@pusan.ac.kr

Received 15 March 2014

Revised 9 May 2014

Accepted 16 May 2014